



기술개발만이 살길이다.

윤종용 / 본회 비상근 부회장
삼성전기(주) 사장

필자는 삼성전자(주) 가전부문 사장에서 삼성전기(주) 사장으로 이동되었음을 알립니다.

금년은 대체적으로 전자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할 것없이 가장 어려웠던 한 해였는데 공감하고 있는 듯 하다. 유례없이 극심한 불황을 겪은 컴퓨터 업계를 필두로, 일부품목이지만 내수자체가 후퇴해 버린 가전업계, 동남아와 중국 등 후발국의 추격과 일본의 막강한 기술장벽앞에서 샌드위치 신세가 되어 국내 시장으로 쫓겨든 우리의 수출상품 등 대부분의 업종에서 좌절감을 맛본 한해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 정부가 제조업 경쟁력 강화대책이란 것을 만들어서 시행한지도 거의 2년이 되어가고 있는데 피부로 느끼는 업계사정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는 점은 어딘가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의 이 불황은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순환성이라기 보다는 구조적인 성격을 더 많이 띠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다시말해서 최근 2~3년간은 수출부진을 내수신장으로 견뎌낼수 있었지만 금년들어 본격화한 국내시장의 정체는 이제 더이상의 피안처는 남아있지 않다는 의미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말그대로 수출에서 정면돌파

를 해야만 이겨낼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수출에서 정면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세계 어느업체와도 겨루어 경쟁력을 지닐 수 있는 상품을 만들어야 한다. 특히 전자산업의 경우, 경쟁우위를 결정짓는 핵심요소는 기술이라 할 수 있다. 기술도 어느 한부분만 잘해서는 안되고 골고루 잘해야만 경쟁에서 이길수 있다. 이같은 점에서 정부와 업계가 공동으로 반성해야 할 점은 기술개발을 위한 의지가 우리가 내건 명분과는 달리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점이다. 정보화시대를 겨냥해서 추진한 제2 이동통신사업이 정치판의 논리에 밀려 표류하고,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한 electro-21 Project 사업도 들리는 말에 의하면 정권이양기에 직면해서 일관성 있는 추진이 지체되고 있는 상황이라니 안타깝기 그지없는 일이다.

이제는 말뿐인 기술개발에 머물수는 없다. 기술이란 한시라도 지체하면 그 몫의 아픔이 되어 되돌아오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또한, 기술개발 전선에서 한번 낙오되면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미국의 왕 컴퓨터사가 워드프로세

서에만 만족하고 새로운 PC의 기술조류에 대응을 제대로 못한 결과 금년을 못넘기고 도산한 것도 기술의 중요성을 입증해 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것이다.

한편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일본기술을 앞지를 수 있겠느냐는 회의도 많지만 금년에 우리의 기술로 이룩해낸 64메가 디램의 기술을 보면 그같은 회의론은 근거 없는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80년대 초반에 반도체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우리의 기술력은 일본에 비해 20년 이상이나 뒤져 있었는데 10년도 채 안되어 이제 일본을 추월해 버린 것이다. 특히, 21세기의 전자기술은 디지털이 지배할 전망이다. 디지털기술이란 아날로그기술과는 달리 기술자의 경력보다는 참신한 아이디어와 젊은 두뇌가 더욱 중요한 기술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볼때, 세계 어느 민족 보다는 우수한 두뇌를 가진 우리민족으로서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무궁무진하게 열릴 수 있는 계기가 마련 될 수도 있으리라 생각한다.

기술경쟁의 세계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감이 있어야만 한다. 올림픽에서 황영조 선수가 막판에 일본선수를 따돌리고 월계관의 영예를 차지한 것도 자신감과 끈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 자신감과 패기야말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가장 큰 버팀목이 아닌가 싶다.

이제 '92년 한해를 보내며 독자적인 기술개발만이 우리가 살길이라는 다짐을 새로이 하게 된다.